

2015.6.21. 주일오후예배 메시지

인도받는 렘넌트, 응답받는 렘넌트

에스라 7:10

이은성 목사님

서론

대학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보니까, 주일날 은혜받는 모습과 현장에서의 모습이 비슷해야 하는데 너무 다른 것 같다.

(1) 대학생들의 고민을 보니까,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이다. 응답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메시지에겐 시간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시간표가 평생인 것 같다는 것이다. 오늘의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런 렘넌트들을 많이 만났다.

(2) 답이 무엇인가 찾는 중에, 에스라서를 보면서 깨달았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 렘넌트 때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인도할 때 고민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왕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사마리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수십 년 동안 중단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스기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톱바벨을 중심으로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본문에, 구약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이야기는 계속 듣다 보면 질리는데, 복음은 계속 듣다 보면 들리는 시간표가 온다. '상처도 환경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메시지다.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나에게 문제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지는 할지언정, 이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많은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강단메시지를 정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란다. 결국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세계복음화할 제자가 된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본론 : 5가지 인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겠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제목이다. 내 삶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응답받을 비밀이 무엇인가? 강단 말씀 속에서 다섯 가지를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란다.

1. 언약 (복음) : 말씀의 흐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위로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 언약을 그 속에서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결국은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처

음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다. 처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창3:15,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되었을 때에도, 출3:18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언약을 주셨다. 가나안에서 포로생활 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7:14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로마에 속국이 되었을 때에도, 마16:16,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시대마다 흘러왔던 복음은, 히13:8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언약을 주시고 계신다. 강단 말씀을 복음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이것을 말씀의 흐름이라고 한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최고의 언약이 된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다.

2. 미션 (실천) - 팀

강단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또한 붙잡아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을 강단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주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영혼 구원이니까, 전도대상자를 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션을 실천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인도다. 특히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면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염려, 불신앙하는 포럼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고 미션을 실천하는 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마7:24-27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위기 오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미션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다. 요14:21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실천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다. 말씀 속에서 미션을 찾고 실천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한다.

3. 비전 (기도제목)

그러면서 우리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찾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기도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제목이 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그 기도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행1:6-8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직접 기도제목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기도제목을 바꿨다. 나라 회복이 아니라 성령충만 받고 증인 되는 것. 육신적인 기도제목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제목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란다. 마6:31-33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언약의 복음과, 실천할 내용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제목을 강단 메시지 속에서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한 주는 가장 소중한 한 주가 될 것이다.

4. 스케줄

우리는 현장으로 돌아간다.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하루의 모든 일, 만남, 원치 않는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많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맞는 우리의 상태다. 우리가 성령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응답까지 받게 하실 것이다. 하루의 스케줄을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과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강단 말씀 잘 붙잡고, 하루하루 성령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란다.

5. 전도대상자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므로,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 주셔야 하는데 이 땅에 남기신 이유가 뭔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매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지역, 세계복음화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강단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론 :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전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1) 전도 문이 열린다. 전도 문은 내가 열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 주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전도 문의 손잡이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전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된다. 내가 열 수 없지만, 두드리는 나를 통해서 안에서는 열어주게 된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전도 문은 하나님이 여신다. 초대교회는 행1:14에, 마음을 같이하여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했는데,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행2:9-11에, 열다섯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지 않나.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텐데, 가장 중요한 전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2) 그러면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를 위한 만남이다. 불신자를 만나면 구원 얻는 만남이 될 것이며 제자를 만나면 같이 현장 살리는 전도의 만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강단 말씀 중심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3) 거기에서 영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장 살려야 하니까, 말씀운동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기를 원하신다. 그것만이 현장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이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은 내 현장에 전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과 말씀운동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4) 거기에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문제나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돌발 같은 사람, 세상의 욕심과 동기 때문에 흔들리는 가시밭 같은 사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같은,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매일 준비합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강단말씀 중심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제자가 발견되고 다락방이 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